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 이론의 재검토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정체감 구조를 밝히기 위한 분석적 구조를 Erikson 이론에서 논의하는 친밀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이론에서는 청년기에 정체감의 확립이 형성된 후, 다음 단계에서 친밀성이 획득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그가 전개한 여성론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다른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통해 Erikson의 발달도식이 여성의 발달경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여성의 발달에서는 정체감 형성과 친밀성의 획득이 병행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여성의 정체감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밀성의 양상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체감 구조에 대해서 친밀성의 양상을 고려한 정체감 형성모형이 제안되었으며, 문화차이나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성을 감안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핵심어: 여성의 정체감 • 친밀성 • 내적 공간

1. 문제의 제기

E. H. Erikson (1902-1994)은 인간의 발달을 심리·사회적 이론으로부터 8가지 발달단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그 발달단계론에서 다섯 번째의 단계인 청년기의 발달과제로서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을 제시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identity'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40년에 미국의 Davis 출판사에서 간행한『The Cyclopaedia of Medicine,

Surgery and Specialities』에 기고한 논문 'Problems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속이었다.

'identity'란 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사람과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 것의 자기자신', '정체(正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최초로 'identity'란 용어가 사용된 지 10년 후에 출판된『Childhood and Society』에서 이 identity란 용어는 특유한 함축을 갖는

정신분석적인 자아심리학의 기초개념으로서, 청년기의 발달과제 속에 위치가 설정되어 정식화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소수민족문제나 청년의 문제가 격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identity나 identity crisis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처음부터 Erikson이 의도하는 ‘identity’란 개념은 심리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애매한 용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 말이 인간심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용어로 보아 독자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박아청, 1996, 1997a). 이에 본 연구자는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을 지금까지 수행된 실증연구들에 비추어 재검토함으로써 정체감 이론의 정립에 의의있는 시사를 찾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성 특히,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예컨대, 박아청, 1997b; 이경혜, 1995, 1997; 박아청·이경혜, 1997, 1998; Hopkins, 1980; Mischel, 1999; Orlofsky, 1973; Shulman et al., 1997)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체감 형성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친밀성(intimacy)과 정체감 형성과의 관련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여성의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분석구조를 검토하려고 한다.

2. Erikson이론에서 본 여성의 정체감 형성

내적 공간론의 전개

Erikson의 최초의 저서 『Childhood and Society』(1950) 속에서 남녀의 놀이공간의 이용에 관한 차이에 대한 연구가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발달모형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는 남녀의 상이점 및 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가 남녀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것은 1964년에 발표한 ‘Womanhood and the Inner Space’에서였다. 그는 서문에서 지금까지 여성의 위치설정이 남성중심으로 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이 만들고, 발전시켜 온 인간론이나 우주론 속에 다양한 위치를 점해 온 것”(Erikson, 1964, p.593)이고, 인간의 여러 구성요인 속에서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rikson의 여성론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저서(1950)에서 발표된 캘리포니아대학의 아동복지연구소에서 10~12세 남녀아동 150명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서 수행된 놀이행동에 대한 관찰이었다. 이 놀이행동에서 여아가 ‘내적 공간(inner space)’을 강조하고, 남아가 ‘외적 공간(outer space)’을 강조한다고 하는 남녀간 공간 사용법에 차이가 보였다. Erikson은 놀이기술관찰에서 보여진 공간배치의 일반적인 해석으로 거론되는 해부적인 해석과 또 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사회적인 해석 모두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보

다 포괄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보다 포괄적·종합적인 분석 관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Erikson 이론의 출발점은 정신분석에 있는데, 여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심리학이 그가 의도하는 여성론과 일치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신분석적인 이론구축의 기반은 문제의 의미를 그 기원에서 추론하는 원인론적 지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해에 관해서는 성의 차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분화에 대한 체험인 것이다. 그런데도 체험의 대부분은 임상적 관찰로부터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정신분석적인 견해는 환자의 고뇌에 대한 이해와 원조를 목적으로 임상의가 남성적인 관점에서 공감함으로써 여성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의 정체감에 관한 이론구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Erikson, 1964, p.502).

이처럼 Erikson은 여성의 정체감 형성을 이해하는데는 신체적·역사적·개인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부학, 역사학, 심리학과 같은 어떤 한 개의 특정한 분야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여성의 개인, 신체적 존재,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것이 '내적 공간(inner space)'이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이야말로 여성의 정체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것과 같은 활동양식

속에서만 스스로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rikson, 1964, p.597)는 것이었다.

내적 공간론에서의 여성의 정체감

Erikson은 이 내적 공간론에서 청년기 여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통합적인 여성의 정체감 출현에 있어서 청년기에서부터 성숙기로의 이행단계가 인생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단계이고, "젊은 여성이 그 노동경력에는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배려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애인의 사랑에 자신을 관여시켜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되는 과정"(1964, pp.598)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인생초기부터 발달해 온 성적차이나 성향은 최종적으로 분극화"(p.599)하는데 그것이 성인기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나아가서 "여성의 육체구조에는 선택한 남성의 아이를 잉태해야 할 '내적 공간'과 아이에게 돌본다고 하는 생물적·심리적·윤리적인 관여(commitment)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p.597)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남성의 정체감 형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 내적 공간론에 대해서 Erikson은 여성의 인생 속에서도 심리적·사회적 유예기간, 이른바 모러토리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모러토리움이란 경제법률용어로서 경제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책무를 유예·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rikson은 이것을 "성인으로서의 기능이 지연된, 사회적으로 인정된 시기", 즉 아동시대와 성인시대를 연결하는 매개적 기간으로서의 청년기를 '심리-사회적 모

리토리움(psychosocial moratorium)'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에게 있어서 "아동이나 성숙한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내적 공간의 압력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남녀의 모리토리움의 상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Erikson, 1964, p.604).

이상과 같이 내적 공간론에서 논의되는 Erikson의 여성론은 발표 이래 프로이트의 여성론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74년 그는 당시 미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여성해방운동으로부터의 내적 공간론에 대한 비판에 응하는 모습으로 'Once More the Inner Space'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새로운 여성성(femininity)이나 여성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에로의 희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새롭고 그리고 보다 총합적인 정체감의 전개를 제시하고 있다.

3. Erikson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적 공간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

1970년 이후, 이 내적 공간론을 검토하려고 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전개되었다. 내적 공간론의 기반이 되었던 관찰연구를 재검토하는 시도로써 Budd와 Clance 및 Simerly(1985)가 수행한 아동의 놀이에서의 공간적 배치(spatial configurations)에 착안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Erikson의 관찰연구에서 제시한 놀이공간을 재현하여 놀이에서 공간배치가 성기의 형태(genital morphology)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Erikson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관찰의 결과에서 도

구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질이 어떤 종류의 공간배치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Budd 등(1985)은 놀이공간의 배치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사회적인 학습의 영향이나 성과 관련된 행동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그 때까지 많은 연구가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1970년 이후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된 것도 특징적인 사실이다. O'Connell(1976)은 삶의 양식(life style)의 차이에 의해 여성의 정체감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삶의 양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친밀성(intimacy)의 단계가 정체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점에서는 내적 공간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삶의 양식의 차이와 정체감의 관련에서 O'Connell(1976)은 Erikson의 내적 공간론이 남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양육한다는 삶의 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삶의 양식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여성에게 있어서도 남성과 동일하게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이 정체감 확립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여성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박아청, 1997b, 1998; 박아청·이경혜, 1997, 1998; 이경혜, 1995, 1997).

또 내적 공간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로서 Morgan과 Farber(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organ과 Farber(1982)는 현대사회에서 남녀의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Erikson의 내적 공간론을 현대사회의 현상을 고려하여 생각하여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는 친밀성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배경을 고려한 직업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관점, 여성의 인생선택에서의 가치체계의 다양화에서 기인하는 갈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Erikson의 발달이론으로 여성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Connell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는 Erikson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삶의 양식 차이가 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직업선택 등 많은 요인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정체감 형성을 내적 공간론으로 구분지은 Erikson의 정체감 형성이론은 현대 여성, 특히 성인여성의 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대한 이론으로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신적인 발달의 상이를 신체적인 상이점에서 찾았던 Erikson 이론의 한계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체감 지위와 친밀감 지위

1960년대 Marcia(1966)가 개발한 정체감 지위(identity status)를 측정하는 반구조화 면접에 의해 그 때까지 이론적으로 고찰되어 온 Erikson의 발달단계의 이론이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

Josselson(1973)은 여자대학생 48명에게 반구조적인 정체감 면접(identity status interview: 이하 Macia법)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는 정체감 확립의 단계와 친밀감 획득의 단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성의 정체감 형성은 굵고 변동도 심하지만 전진하는 직선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원심적으로 원을 그리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Erikson은 문화적·역사적인 배경이 정체감 형성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는데, 실제로 사회라고 하는 배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체감의 본질이나 형성과정은 그것에 동반하여 변화하는 것이라고 Josselson(1973)은 지적한다.

또 Hopkins(1980)는 프로이트의 유아성욕이론에 소급하여 생물학적, 발생학적, 내분비학적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Erikson의 내적 공간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다음, Marcia법을 활용하여 내적 공간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의 여성에 있어서도 그때까지는 남성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외적 공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Erikson의 이론을 살펴보면 여성에 있어서 외적 공간의 측면이 특히, 청년기에서 정체감 형성에 관련되어 있음과 같이 남성의 정체감 형성에도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시되고 있는 내적 공간 측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의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영석 등(1982)과 박아청(1985)이 Marcia법을 변안하여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연구한 것을 시초로 '정체감 지위'란 개념에 관심이

일어났으며 이것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박아청, 1994a).

1970년대가 되면서 친밀성을 측정하는 접근이 전개되었다. Orlofsky 등(1973)은 반구조적인 intimacy status interview (친밀성지위면접: 이하 Orlofsky법)을 개발하여 Marcia법과 병행하면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관련성에서 발달의 남녀차이를 밝히려 하였다. 그들은 성인기의 발달과제로서 Erikson이 위치를 설정한 친밀성을 Intimate(친밀성), Preintimate (전친밀성), Pseudointimate (유사친밀성), Stereotyped relationships(정형화된 관계성), 및 Isolate(고립)로 5가지 친밀성 위치로 분류하였다. 53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친밀성 대 고립(intimacy vs. isolation)이라는 발달과제의 획득형태가 일련의 연속성을 형성하고,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odgson과 Fisfer(1979)는 대학생 남녀 각 50명에게 Marcia법과 Orlofsky법을 실시하여 성차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정체감 확립이 친밀성 획득의 전제가 되어 있는데 비해, 여성은 정체감 확립과 친밀성의 획득이 평행하여 진행되는 사실에서 정체감 형성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Whitbourne 등(1982)이 대학 3, 4학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차를 중심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관련을 검토한 연구는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된 친밀성의 달성과 관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으나, 이 관계가 여자보다 남자에 있어 현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Erikson의 남녀

각각에게 가설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의 의미하였다.

Craig-Bray와 Adams 및 Dobson(1988)은 정체감 지위의 객관적 척도개발을 300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가운데에서 전형적인 정체감 지위를 보인 48명을 추출하여 Orlofsky법을 실시하였다. 그렇게 한 결과,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에는 유의한 상관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요인이 정체감 형성과 친밀성과의 관계에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아청(1994b)은 남녀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상관을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요인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이 증가하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조기완료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요인이 낮아지고,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친밀성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관련을 검토한 연구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있어서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서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에는 성차가 인정되고, Erikson의 이론에서 제시된 정체감이 확립되면서 친밀성이 획득되간다고 하는 발달과제와 발달단계와의 관련에 대한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사실에서도 Erikson의 발달단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관한 ‘관계성적 접근’

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rikson이 의도한 친밀성을 엄밀히 분석하면, 친밀성에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양성하는 능력으로서의 친밀성을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한 이성과의 깊은 관련이라고 하는 측면과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타인과의 깊은 관련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Erikson, 1968).

여성의 발달이란 관점에서는 Erikson은 내적 공간론에서 여성의 정체감이 장래 자기의 내적 공간에 다음 세대를 잉태와 관계가 있는 남성과의 관련 속에서 확립된다고 논하고 있는 점에서, 남성과의 관련 능력을 친밀성이라고 본다면 Erikson 자신은 여성과 남성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몇 편의 실증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8가지 발달단계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1950년 그의 발달단계가 구축된 이후, 만년의 저서 『The Life Cycle Completed』(1982)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론에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발달단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에는 자신이 선택한 남성의 아이를 잉태하는 ‘내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을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본 Erikson의 주장은 그 후 신체구조에서 성별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예컨대, Carlson, 1972; Gilligan, 1979 등)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여성의 특유한 신체구조에 근거를 둔 Erikson의 내적 공간론을 근거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남녀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남성에 비해 보다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타인과의 관계의 질, 즉 ‘관계성(relatedness)’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자청년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타인간에 다양한 ‘관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박아청, 2000; 박아청·이경혜, 1998).

Josselson(1973)은 48명의 34개 여자대학교 상급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남성의 정체감이 학위나 경제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확고하게 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비해,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청소년기의 여자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초자아, 즉 내면화된 부모의 제한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를 받는 자아의 양식에 상관되어 있는 점이 남성과 다르다고 보았다.

지난 35년 동안 발표된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발달이론에서 재분석한 Michael과 Adams(1999)는 종래의 정체감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정체감 발달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

다. 특히 남녀간의 발달 양상을 동일한 것 패러다임으로 보려는 견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고찰에서, 현대 여성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에 정체감과 친밀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된 용어의 개념규정이나 원어(영어용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밀성에 관하여 Erikson은 성인기의 발달과제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성의 파트너와의 깊은 관련을 갖기 위한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아청, 1990, 1997b). 그러나 발달과제가 어느 한 시기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체계가 계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점성적 발달표(epigenetic chart)의 성질상, 성인기 이전의 대인관계에서도 친구 등과의 주위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깊은 관련이라고 하는 측면의 친밀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관계성 속에서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것이고 일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친밀성을 이해하면 청년기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관한 친밀성에는 이성의 파트너와의 깊은 관련이라고 하는 측면과, 친구나 가족 등의 주위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깊은 관련이라고 하는 중요한 2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친밀성'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함으로써 개념이 2가지 측면으

로 분산되어 애매하게 되어버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개념의 혼란을 피하고, 정체감의 구조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친밀성의 각 측면을 표현하는 새로운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친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 친구와의 친밀성과 이성의 파트너와의 친밀성을 분류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면서도 상세한 정체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친밀성이 갖는 2가지 측면을 분할함으로써 청년기 이전의 대인관계에서 청년기, 성인기의 대인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파트너 및 대인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발달에 대한 다면적인 파악이 앞으로의 연구의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친구 및 배우자관계

Erikson이론에서 가족이란 용어가 사용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다. 가족과 관련된 용어로서는 영유아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와의 관계'란 용어가 눈에 띈다. 그러나 청년기에서는 청년과 가족, 또는 어머니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청년기의 여성에 관해서 'Womanhood and the Inner Space'(1964)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 찬 경멸로부터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와 타의 여성과의 연대(jointly)로"(Erikson, 1964, p.275)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청년기의 여성이 정체감 형성에서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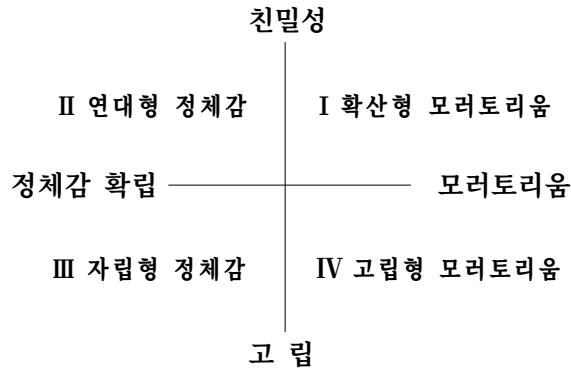


그림 1. 여성의 정체감 형성의 분석구조

있는 어머니를 동일시해 가는 관계성에 대한 기술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과의 관련에 관한 기술에서 남성에 관해서는 없는 점에서도 Erikson이 발달에서의 성차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Erikson이 만년에 이르기까지 청년기의 가족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았던 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Erikson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청년과 가족에 관한 연구는 양자가족에 대한 연구 등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1970대 말부터 정체감 형성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이혼율의 상승에 의해 표출되기 시작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Waterman, 1982).

청소년 또는 청년이 그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데는 가족간의 관계가 매우 중

요하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분리과정은 이들의 심리발달에 중핵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한 점에서 Sullivan과 Sullivan(1980)도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과정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또는 청년이 처한 가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족간의 애착과 분리, 의존과 독립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배제현, 1993; 배지숙, 1999; 장휘숙, 2000; 정종권, 1998; Baik, 1997; Campbell et al., 1984;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1984; Kroger, 1985; Kroger & Haslett, 1988; LaVoie, 1976; Matteson, 1974, Shulkin, 1990).

이상의 연구들 가운데에서도 대개의 연구들이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가족간의 관계가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

고 있다.

가족 또는 친구간의 역할이 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신태수, 1986; 정종권, 1998; Bell, 1985; Steinber & Silverberg, 1987; Archer, 1992)과 이성과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의 배우자역할과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들(이경혜, 1997; Grotevant 등, 1982; Shulman et al., 1997)에서도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남성과 다름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우정의 친밀성(closeness)을 측정한 Shulman 등(1997)은 정서적인 친밀성(emotional closeness)을 자기노출(self-disclosure)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의 차이와 개인이 보는 방식의 유형에 의해 대응방법도 다양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체감 구조와의 관련성이나 개인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여성의 정체감 형성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대인역할의 하위영역에 따라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는 송설희(1994)의 연구와 같이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대인관계의 역할이 남녀구분이 없음을 말해주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은 그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성에게 비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친밀성을 축으로 한 '관계성적 접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논의하는데는 '관계성'의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체감 형성과 확립을 다루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객체로서의 정체감인 자기 정체감(self identity)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인초기 이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대한 설명은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접근을 잠정적으로 '관계성적 접근'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관계성적 접근'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청년기의 정체감 확립과 모러토리움을 한 축으로 하고, 초기성인기의 친밀성과 고립을 다른 한 축으로 직교시키어 정체감 형성의 분석구조를 4가지 유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정체감 형성형태는 여성, 특히 성인초기 여성의 정체감 형성과 발달이 관계성과의 관련에서 나타난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사분면은 친밀성은 형성되어 있지만 정체감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산형 모러토리움'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보기에는 발달단계의 순서와는 모순되고 있는데 빈약한 정체감을 가진 성인여성이 타인과 융합을 하여 정체감이 확산해버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제2사분면은 정체감과 친밀성이 연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는 '연대형(連帶型)정체감' 상태로 부르하고자 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친밀성과의 연대에서 자아정체감이 확고해진다는 의미에서 연대형이라 부르는 이 유형은 정체감이 형성되고 나아가서 초기성인기의 친밀성도 형성되어 있는 유형으

로 현대성인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사분면은 정체감은 형성되어 있지만 친밀성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자립형 정체감’이다. 이 자립형 정체감은 청년기의 정체감-모러토리움의 축으로는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초기성인기의 친밀성-고립의 축을 도입하면 다른 정체감과 상호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아의 총합적 기능에 의해 정체감은 형성되어 있지만 2차적 사회화에서의 친밀성의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친밀성이 결여되어 고립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른바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진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친밀성이 형성되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고립을 나타내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체감 획득이 미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박아청·이경혜(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역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실히 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고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전문직 여성들에게서 이와 같은 정체감 형성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제4사분면은 정체감이 형성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친밀성도 형성되지 않고 고립의 상태인 ‘고립형 모러토리움’으로 불리는 집단 유형이다. 이 고립형 모러토리움은 정체감의 미형성으로 다른 정체감과의 상호성도 형성할 수 없는 상태로 병리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정체감 유형이 각자 상위개념적인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 또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정체감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Marcia법에서 측정하는 정체감 지위는 정체감 확립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확립되어 있지 않은가를 분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개인의 정체감의 구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체감 지위의 분류에 있어서는 동일한 단계에 있는 개인에서도 정체감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와 같은 정체감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체감 개념이 서구의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구축해 온 개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아청, 1996).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기의 구조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기를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나 집단에서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서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를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로 보고,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를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성을 받

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는 청년 뿐 아니라 집단내에서의 정체감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성이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정체감 형성에 친밀성의 문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문화배경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의 정체감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의 양상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갖게 되는 관계성이 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동성을 포함한 이성 친구와의 친우관계나 이성파트너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각 측면에서의 관계성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Orlofsky법에서 파악하려는 친밀성 지위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측정된 친밀성 지위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를 다루는 방식과 실제생활에서의 거리의 유지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아가서 타인을 중시한 관계성인가, 아니면 자기를 중시한 관계성인가 하는 경향이 정체감 형성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석·김영석·백미정(1982). 한국대 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형성에 관한 연구. 제7회 전국대학생 학술연구 발표대회논문집, 21-45.
- 박아청(1985). 한국과 일본대학생의 자아 정체감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상담, 제10집, 계명대 학생생활연구소, 23-48.
- 박아청(1990).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명행동과학, 제3권 제1호, 계명대행동과학연구소, 55-75.
- 박아청(1994a).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3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67-185.
- 박아청(1994b).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정준상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7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64-76.
- 박아청(1996).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 김재은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창지사.
- 박아청(1997a). 아이덴티티를 초월한 아이덴티티의 문제; 사상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교육학연구, 계명대사회과학연구소, 제15권 제1호, 69-88.
- 박아청(1997b). 성인기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연구의 경향과 전망. 교육학연구, 계명대사회과학연구소, 제14권 제1호, 56-66.
- 박아청(1998). 자아정체감과 신뢰감과의

- 관계. 교육학논총, 한국교육학회 대
구경북지회, 제19집, 237-256.
- 박아청(2000).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
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
회지: 발달, 제13권 제1호, 한국심리
학회, 115-126.
- 박아청·이경혜(1997).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나타난 생
성감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계명
대사회과학연구소, 제17권 제1호,
1-18.
- 박아청·이경혜(1998). 중년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
계. 교육학연구, 계명대사회과학연구
소, 제18권 제1호, 183-198.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와 자아정체감, 학교·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석사학
위논문.
- 백지숙(1999). 후기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아동학회, 269-
277.
- 이경혜(1995). 성인여성의 정체감 발달
에 나타나는 위기의식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계명대사회과학연구소,
제16권 제1호, 64-76.
- 이경혜(1997). 중년여성의 정체감 발달
에 관한 연구경향. 아동교육, 제6권
제2호, 143-153.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13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115-
130.
-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ik, J. S.(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tion and
psychometric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udd, B. E., Clance, P. R., &
Simerly, D. E.(1985). *Spatial
configurations: Erikson reexamined*.
Sex Roles, 12(5-6), pp.571-577.
- Campbell, E., Adam, G. R., &
Dobson, W. R.(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509-524.
- Carlson, R.(1972). Understanding
women: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17-32.
- Craig-Bray, L., Adams, G. R., &
Dobson, W. R.(1988).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7(2), 173-187.
- Erikson, E. H.(1964). The inner and
Outer Space: Reflections on
Womanhood. *Daedalus*, XCII, 2,
582-606.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illigan, C.(1979). Wome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4), 431-446.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2, 121-139.
- Grotevant, H. D., Thorbecke, W., & Meyer, M. L.(1982). An extension of Marcia's identity status interview into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1), 33-47.
- Hodgson, J. W., & Fisher, J. L.(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37-50.
- Hopkins, L. B.(1980). Inner space and outer space identity in contemporary females. *Psychiatry*, 43, 1-12.
- Josselson, R.(1973). Psychodynamics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3-52.
- Kroger, J.(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33-147.
- Kroger, J., & Haslett, S. J.(1988).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59-79.
- LaVoie, J. C.(1976). Ego identity formation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371-385.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teson, D. R.(1974). *Alienation vs. exploration and commitment: personality and family correlates of adolescent identity status*. Report from the Project for Youth Research. Copenhagen: Royal Danish School of Educational Studies.
- Mischael, D., & Adams, J.(1999). Reevaluating the I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 Years. *Developmental Review*, Vol. 19, No. 4, 557-590.
- O'Connell, A. N.(1976). The

-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identity synthesis and resynthesis in traditional, neo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44, 675-688.
- Orlofsky, J. L., Marcia, J. E., & Lesser, I. M.(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ersu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7(2), 211-219.
-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 and Adolescence*, Vol. 19, No. 5, 511-538.
- Shulkin, A. T.(1990).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Identity status among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hulman, S., Laursen, B., Kalman, Z., & Karpovsky, S.(1997). Adolescence intimacy revisited. *Journal of Yout and Adolescence*, Vol. 26, No. 5, 597-617.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41-358.

A Theoretical Review of Erikson's Analytical Framework for Female Identity Formation

Ah- Chung Park

Dept. of Education Keinyung University

The epigenetic model for female identity formation developed by E. H. Erikson remains one of the most theoretically comprehensive studies, and it touches on wide areas of human growth. In this study, thos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identity formation are examined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of female identity formation. Erikson's assumption on psychological crisis resolution is that the positive resolution of the identity crisis is predictive of more mature intimacy formation. Although he expressed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developmental processes of identity formation, he did not codify the idea until much later. However, the sex differences were evident in empirical studies by other investigators.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female identity status develops along with intimacy status. Therefore contemporary norms regarding the appropriate roles for female will have to contrasted with the social expectations of Erikson's original model on female identity achievement. This study identifies a complex association between female identity and intimacy formation. Numerous complex sex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several interactions between gender, commitment, and intimacy context. Finall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for female identity 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to go beyond the identity and intimacy linkage.

Key words : female identity formation • intimacy • inner space